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3월 FOMC: 신중한 파월이 선반영된 불안심리를 진정시켜...

- 기준금리 동결 & QT축소(50억달러), 25년 2회, 27년까지 5회 금리인하 유지.
- GDP 성장률 전망 하향, 물가 전망 상향조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축
- 불안심리 선반영한 美 증시 반등, 금리, 달러 하향안정 = KOSPI 반등 지속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경기 불안심리 완화. 이번에는 서베이 지표

- 서베이 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 확인, 파월 발언 이후 불안심리 완화
- S&P PMI, 4분기 GDP 수정, 내구재수주 등 실물지표에서 경기둔화 우려 정점통과
- 공매도 재개, 관세부과, 탄핵심판 등 앞두고 단기 변동성 유입은 비중확대 기회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더 글로벌 레이터 Weekly / 3월 4주차 전략] 글로벌 증시, 봄이 찾아온다

- 3월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미국, 유럽, 일본 등) 반등 탐색 구간 진입. 저점 높여가는 중
- 美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발단이 성장 둔화에서 시작. 현 시선 재조명 필요. 4월 글로벌 증시, 반등을 넘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원동력
- 27일 美 1/4분기 GDP 속보치 구심점 역할. 현 역성장애 매몰된 시장 예측치와 다른 반전 결과 확인 시, Buy the dip 전략 유효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Macro

[을지로 지표맛집]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파월

-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관세로 인한 물가압력은 일시적이라는 언급에 시장은 완화적으로 해석
- 4/2 불공정 무역조사 결과 앞두고 금융시장 관심은 다시 트럼프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
- 특히 한국이 '더티15'에 포함되는지, 상호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이 국내자산 투자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1Q25 Preview] 미래에셋증권: 12 조원의 자본이 빛을 발휘할 시기 (목표주가 +30% 상향)

-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담 완화되는 반면 비시장성 자산 평가익은 증가
- 레버리지 쓰는 투자 특성상 이자비용 부담 컸으나 금리하락으로 경감
- 1분기 실적 양호, 목표주가 상향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Issue & News] 유한양행: 2025 ELCC(유럽폐암학회) Preview

- MARIPOSA mOS HR 0.77 → 0.75로 개선, 사망 위험 25% 감소 전망
- ■ 타그리소 대비 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mOS 최소 12개월 이상 개선 전망
- ■ MARIPOSA 포함 총 4건의 임상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 발표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3월 FOMC: 신중한 파월이 선반영된 불안심리를 진정시켜...

- 기준금리 동결 & QT축소(50억달러). 25년 2회, 27년까지 5회 금리인하 유지.
- GDP 성장률 전망 하향, 물가 전망 상향조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축
- 불안심리 선반영한 美 증시 반등, 금리, 달러 하향안정 = KOSPI 반등 지속

3월 FOMC, 기준금리 동결, 국채 상환 한도 50억달러로 축소, 성명서에서 문구 변경보다 예상보다 빠른 QT 축소에 금융시장 안도

Fed는 3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 ~ 4.5%로 동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 한편, 국채 보유량 축소 속도를 늦추는 결정을 성명서에 추가

성명서에서 연준은 기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문구를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문구를 변경.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선반영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경제 전망 및 물가 불안에 대한 문구 변경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QT축소가 4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장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명서 공개 직후 달러화와 채권금리는 레벨다운되었고,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 기존 악재보다는 새로운 호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점도표는 12월 FOMC와 동일. GDP 성장률은 하향조정, 물가 전망은 상향조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선반영한 시장. QT 축소와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환호

점도표와 경제/물가전망은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리를 자극할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물가 불안을 선반영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경기불안 인정, 일시적인 물가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안도심리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와 물가 불안이 커졌음을 인정하면서 '신호와 소음'이라는 기준점을 통해 관세로 인한 물가, 경기불안은 일시적인 영향임을 피력했던 것이 시장에 주요.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장기 물가상승 기대치는 견조하다고 언급했다. 경기 측면에서는 서베이 데이터는 경기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하드 데이터에서 경기우려 신호 없음을 명확히 했다. 현재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침체 위험이 낮음을 언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한 부분으로 장 중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점이었다

3월 FOMC를 기점으로 과도했던 미국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후퇴하면서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투자심리 회복만으로도 증시 반등이 가능한 국면에 위치해있고, Risk On 시그널 전환과 변동성 완화 국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KOSPI 상반기 3,000선 돌파를 향한 흐름 지속

미국 증시 반등 과정에서 KOSPI는 3월 중 2,700선을 넘어 상반기 타겟인 3,000선을 향하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선수요 유입 속에 중국과 독일 경기부양정책 강화가 가세했다. 게다가 중국 1 ~ 2월 실물지표 호조는 중국 정책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지며 Non-US 증시, KOSPI에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의 변화는 한국 수출 호조, 1분기 기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며 KOSPI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다만, 가격/밸류에이션 매력에 근거한 업종별 차별화는 감안해야 한다.

올해 KOSPI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순환매 양상이 뚜렷하다. 특히,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업종/종목 수익률이 가격/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라 엇갈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세 번의 공매도 재개 이후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업종/종목은 부진했던데 반해 가격/밸류 매력이 높은 업종/종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 높았다

경기 불안심리 완화. 이번에는 서베이 지표

- 서베이 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 확인, 파월 발언 이후 불안심리 완화
- S&P PMI, 4분기 GDP 수정, 내구재수주 등 실물지표에서 경기둔화 우려 정점통과
- 공매도 재개, 관세부과, 탄핵심판 등 앞두고 단기 변동성 유입은 비중확대 기회

KOSPI는 대내외 우려요인들을 해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 특히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 유입, 투자심리 개선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경제전망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인정했으나, 연내 2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 파월의장은 최근 관세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심리지표에서 확인되지만, 실물 지표를 근거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피력. QT축소 속도조절 결정 더하며 시장 안도감 유입. 위험자산 투자심리 완화, 미국증시 반등한다면 KOSPI 상승세도 지속 가능

25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에 주목. 2월 조사에서 경기침체 우려를 키웠던 서베이 지표로 기대인플레이션과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비율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관심. 컨센서스는 지난달 98.3 대비 추가 둔화된 94로 예상되나, 파월이 서베이 지표에 대한 시장 불안을 잠재웠고, 계란 가격 등 일시적요인의 안정, 관세 불확실성 소화, 심리지표 확인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반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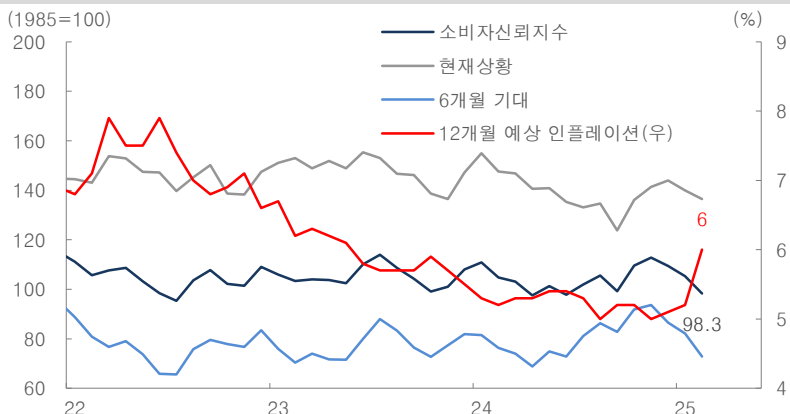
24일 S&P 미국 PMI 발표.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개선 시 경기우려 완화될 수 있으며, 제조업 지수에서 선수요 모멘텀 지속 확인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황의 반등 기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27일 4분기 GDP(수정), 2월 내구재 수주 등 실물지표에서도 미국경기둔화 우려 정점 통과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한편, 다음주 후반 유입될 수 있는 변동성에 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정치적 리스크 해소 지연. 3월 31일 공매도 재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단기적 노이즈 유입될 수 있음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와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 불확실성 이후 외국인 수급 개선 변수로 판단. 관세부과를 앞두고 유입되는 변동성 또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단기 조정 이후 반등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추가적인 비중확대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 9.2배, 선행 P/B 0.85배로 3년 평균의 -1 표준편차선 상단에 안착, 여전히 통계적 저평가 영역에서 선행 P/E 3년 평균(10.2배) 회복만으로도 2,900선 도달 가능한 상승국면. 7월 11일 이후 고점대비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위치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디스플레이가 있고,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반도체, 2차전지, 은행, 보험,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제안.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는 소외주이자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매력적

경기둔화 우려 반영중인 소비자신뢰, 지표 확인하며 정점통과 가능



자료: Conference Board,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글로벌 증시, 봄이 찾아온다

- 3월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 반등 탐색 구간 진입
-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발단이 성장 둔화에서 시작. 현 시선 재조명 필요
- 27일 美 1/4분기 GDP 속보치 구심점 역할. Buy the dip 전략 유효

3월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는 반등 탐색 구간에 접어들며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2월 CPI, 3월 FOMC를 통해 기존 금리 인하 견해(올해 2번, 50bp)가 유지되고, 유럽 증시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라-우 전쟁 휴전, 일본 증시는 BOJ 금리 동결로 엔화 약세에 기반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등 위험선호 심리는 재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 증시도 양회를 통해 적극적인 내수 부양과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연초 이후 낙폭을 거의 메꿔나가는 중이다.

2월 하반기와 3월 상반기 사이 전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킨 미국 증시는 기술적 분석상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낙폭 과대(고점 대비 하락폭 기준. 3.13일) 구간을 거쳤고,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성장 둔화로 해석됐지만 오히려 장기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유도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지속성이 제한됐다.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발단이 성장 둔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 시선을 재조명해 봐야한다. 이는 3월 하반기에 이어 4월에도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넘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27일 발표되는 미국의 1/4분기 GDP 속보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18일 기준,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는 1/4분기 -1.8%(QoQ 이하) 역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2월 -2% 후반대까지 급감했던 레벨이 올라서고 있고 블룸버그 예상치(20일 기준)는 2.5% 성장을 예측 중이다. 현재 역성장에 매몰된 시장 예측치와 다른 반전이 결과로 확인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는 점이 재생산되며 글로벌 증시는 반등을 넘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 Buy the dip 전략은 유효하다.

표 1. 다음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5.3.24~30)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1/4분기 GDP	미국	3.27	2.3 % QoQ	2.5 % QoQ	▲	추위, LA 화재, 트럼프 관세 부과 선 대응 여파로 GDP 성장을 영향 주시
2월 PCE/근원	미국	3.28	2.5 / 2.6 % YoY	2.5 / 2.7 % YoY	- / ▲	동계, 트럼프 관세 부과 불확실성 감안 시, 오름폭 둔화는 긍정적
2월 개인소득/개인소비	미국	3.28	0.9 / -0.2 % MoM	0.4 / 0.6 % MoM	▼ / ▲	최근 개인 소비 심리 위축 우려를 상쇄해 줄 경우 성장 둔화 우려 희석

일자	국가/지역	주요 지표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대비
3.24	미국	제조업 / 서비스업 PMI	3월	%	52.7 / 51.0	- / -	- / -
3.25	미국	S&P/CS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	1월	% YoY	4.48	-	-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월	P	98.3	94.0	▼
3.26	미국	내구재 주문 / 근원	2월	% MoM	3.2 / 0.0	-0.7 / -	▼ / -
3.27	미국	GDP 속보치	1/4분기	% QoQ	2.3	2.5	▲
	미국	잠정주택매매	2월	% MoM	-4.6	-	-
3.28	미국	PCE / 근원	2월	% YoY	2.5 / 2.6	2.5 / 2.7	- / ▲
	미국	개인소득 / 개인소비	2월	% MoM	0.9 / -0.2	0.4 / 0.6	▼ / ▲

기준일: 25. 3. 20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Macro

Economist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파월

S&P PMI 잠정치, 4/2 앞두고 관세 관련 소식 모니터링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는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FOMC 점도표에서 2025년 최종금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성장률은 하향, 실업률은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아 성장둔화 가능성을 인지한 모습이다. 물가전망치는 헤드라인과 근원 상승률 모두 높였으나,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압력은 일시적이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에서 완화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번 달 실물지표는 어느정도 발표되었으며, 4/2 불공정 무역조사 결과와 구체화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관심은 다시 트럼프의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뉴욕연은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급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감소했다. 미국 기업들의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주 S&P PMI가 발표되는데, 3월에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제조기업 활동을 제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번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제조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도 금번 회의에서 미국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는 등 글로벌 통화당국 역시 미 정책의 구체화를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은 '더티15'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 국가들에 높은 관세율 부과를 경고했다. 최근 미국은 농산물 수입관련 문제로 한국을 직접 언급한 바 있어, 4/2을 앞두고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1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상호관세는 어떻게 책정될지 등 관세 관련 소식이 국내자산 가격 변동성 및 투자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주 주목할 매크로 지표 및 이벤트

일자	국가	지표 프리뷰	예상치	이전치
3/21	일본	2월 전국 헤드라인/근원 CPI YoY	3.5/2.9	4.0/3.2
3/24	유로존	3월 S&P 제조/서비스업 PMI	-/-	47.6/50.6
	미국	3월 S&P 제조/서비스업 PMI	-/-	52.7/51.0
3/25	독일	3월 IFO 기업환경지수	-	85.0
	미국	1월 S&P CS 주택가격 YoY/MoM	-/-	4.5/0.5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94.0	98.3
3/26	미국	2월 내구재 수주 MoM	-0.7	3.2
3/28	일본	3월 도쿄 헤드라인/근원 CPI YoY	2.8/2.2	2.9/2.2
	미국	2월 PCEPI YoY/MoM	2.5/0.3	2.5/0.3
		2월 근원 PCEPI YoY/MoM	2.7/0.3	2.6/0.3
		2월 개인소득 MoM	0.4	0.9
		2월 개인지출 MoM	0.6	-0.2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래에셋증권 (006800)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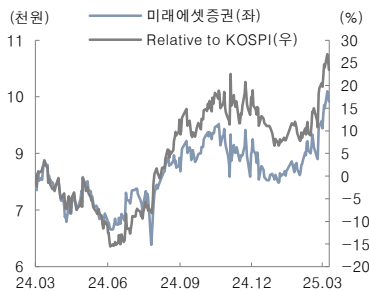
9,700

(25.03.19)

증권업종

KOSPI	2,628.62
시가총액	6,18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9%
자본금(보통주)	3,33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920원 / 6,6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1억원
외국인지분율	14.11%
주요주주	미래에셋캐피탈 외 17인 32.13% 네이버 8.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7	14.8	9.4	20.6
상대수익률	11.5	6.4	7.4	21.9



12조원의 자본이 빛을 발휘할 시기

-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담 완화되는 반면 비시장성 자산 평가익은 증가
- 레버리지 쓰는 투자 특성상 이자비용 부담 컸으나 금리하락으로 경감
- 1분기 실적 양호, 목표주가 상향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3,000원으로 +30% 상향

12조원(연결기준)을 상회하는 자본이 드디어 빛을 발휘할 시기 도래.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해외 상업용부동산 감액손실은 완화되는 반면, 미국 금리 인하로 비시장성 투자목적자산(스페이스X, X 등)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동사는 국내에서 채권 잔고가 가장 많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FVPL 평가익 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지수 상승으로 운용수익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 특성상 금리 상승으로 3년동안 이자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

퇴직연금 실물이전제가 시행되며 그 동안 연금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에 매진했던 동사의 잔고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난 11월 업계 최초 4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4개월만에 5조원이 또 증가하여 총 45조원 달성. WM 수익 증가에 기여할 전망

우리는 2025년 동사의 세전이익을 1.46조원(YoY +23.5%, ROE 11.1%)으로 전망하고 있음. '24년말 기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는 총 1.4조원으로 '24년에만 3,400억원 감액손실 반영되었는데, 올해 이 부담이 30%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 전술한 투자포인트에 따라 우리는 동사의 목표주가를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30% 상향 조정함

1Q25 지배주주 순이익 2,600억원(QoQ +10.7% YoY +57.8%) 기록 전망

1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 +23% 상회할 전망. 국내외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BK수수료수익 증가 예상되고, 연금자산 증가에 따라 WM수익도 양호할 전망. 특히 해외부동산 감액 처리 거의 마무리되며 2~300억원 수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채권평가익 및 운용수익 증가하여 트레이딩 수익 3,508억원(QoQ -24.2%, YoY +10%)으로 양호할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2	2023	2024P	2025E	2026E
순영업수익	2,160	1,882	2,960	2,933	3,111
영업이익	846	511	1,159	1,258	1,504
당기순이익	601	287	889	1,069	1,204
YoY	-48.0%	-52.3%	210.1%	20.1%	12.7%
EPS	1,213	861	2,839	3,208	3,616
BPS	16,574	23,657	26,386	27,740	30,283
PER	6.73	9.47	2.87	3.07	2.73
PBR	0.49	0.34	0.31	0.36	0.33
ROE	5.71	2.58	7.34	8.21	8.48

자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한양행 (000100)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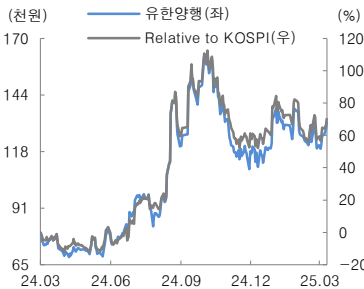
131,100

(25.02.12)

제약업종

KOSPI	2637.1
시가총액	10,64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0%
자본금(보통주)	8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63,700원 / 68,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72억원
외국인지분율	19.32%
주요주주	유한재단 외 2인 15.92% 국민연금공단 7.7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3	18.9	-9.8	75.5
상대수익률	8.0	8.4	-11.3	79.0



2025 ELCC(유럽폐암학회) Preview

- MARIPOSA mOS HR 0.77 → 0.75로 개선, 사망 위험 25% 감소 전망
- 타그리스 대비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mOS 최소 12개월 이상 개선 전망
- MARIPOSA 포함 총 4건의 임상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 발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8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영업가치는 라즈클루즈 출시 3년차인 27년 추정 EBITDA를 25년으로 현가화하고 Target EV/EBITDA 26배 적용하여 14조원으로 산정. 비영업가치는 YH35324 신약가치에 보유지분 가치를 더하여 1.2조원 추정. 총 기업가치는 영업가치에 비영업가치를 더하여 15.3조원으로 산정

2025 ELCC Abstract: MARIPOSA mOS HR 0.77 → 0.75로 개선

3/26-29일간 개최되는 유럽폐암학회(ELCC,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의 초록이 3/20일 공개됨. MARIPOSA 임상 3상의 추적 관찰기간 37.8개월 결과 확인. mOS는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NR(95%, CI 42.9-NE), 타그리스 36.7개월 (95%, CI 33.4-41.0), [HR 0.75, 95% CI 0.61-0.92, P<0.005]. 3년 생존율은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60%, 타그리스 51% 달성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병용군은 mOS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나, HR(Hazard Ration)의 경우 0.77에서 0.75로 이전보다 개선되며, 타그리스 대비 사망 위험을 25%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mOS를 최소 12개월 이상 연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관련 세부 데이터는 한국 시간으로 3/27일 (목) 00:45AM KST 학회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할 예정

2025 ELCC Preview: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총 4개 임상 결과 발표

ELCC에서 안센/유한양행은 MARIPOSA 데이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병용요법에 대한 우수한 임상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점이 긍정적

초록 내용에 따르면, AMAZE-Lung 임상 2상에서 2L으로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베바시주맙을 적용, 타그리스 치료 후 chemo free 2차 치료제 옵션으로 효과를 확인하였음

COCOON 임상 2상에서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1차 치료 환자 대상으로 피부 관련 이상반응 치료 전략을 평가, COCOON DM이 표준 치료법 대비 피부 관련 이상반응 감소 및 아미반타맵 투약 중단율을 약 50% 줄였음

CHRYSLIS-2 임상 2상 Cohort C에서 비정형 EGFR 돌연변이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1L으로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병용군을 1L EGFR TKI 단독군과 비교,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병용군 mOS는 도달하지 않았고, 1L EGFR TKI 단독군은 19.6개월 기록, HR 0.29로 사망 위험 71% 감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